

《朝鮮王朝實錄》에 인용된 《詩經》〈文王〉편의 활용사례 고찰*

鄭元皓**

〈目次〉

- | | |
|----------------------------------|--------------------------|
| I. 서론 | 1. 군주가 신하에게 인용한
〈文王〉편 |
| II. 《詩經》〈文王〉편의 내용 풀이
와 인용양상 | 2. 신하가 군주에게 인용한
〈文王〉편 |
| 1. 〈文王〉편의 내용 풀이 | IV. 결론 |
| 2. 〈文王〉편의 인용 양상 | |
| III. 《實錄》에 수록된 〈文王〉편의
활용사례 분석 | |

I. 서론

《朝鮮王朝實錄》은太祖부터 哲宗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적 흐름을 年·月·日 순으로 기록한 編年體적 역사기록이다.

지난번 줄고¹⁾에서 《朝鮮王朝實錄》에 들어 있는 전체 《詩經》의 인용 사례를 가지고 고찰한 바가 있다. 그 연구에서는 《詩經》 전체 작품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에 끼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때문에 《詩

* 이 논문은 2014년도 동의과학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의과학대 관광중국어전공 조교수

1) 정원호, 《〈朝鮮王朝實錄〉의 《詩經》活用例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經》개별 작품의 《實錄》²⁾내에서의 폭넓은 고찰은 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實錄》을 기반으로 한 《詩經》 작품과 관련된 연구는 앞서 언급한 즐고 이외에 강미정의 박사논문이 한편 있다. 강미정은 〈牆有茨〉, 〈桑中〉, 〈柏舟〉, 〈雲漢〉, 〈株林〉, 〈關雎〉, 〈麟之趾〉 라는 총 7편의 《詩經》 작품으로 간통 사건과 연관지어 연구를 진행하였다.³⁾ 그 외 《實錄》의 《詩經》 작품과 관계없이 조선의 유교 정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연구⁴⁾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으나 본고와는 그 연구 대상이나 방향이 다르다.

〈文王〉편은 《詩經》 305편 가운데 조선의 정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시편이다.⁵⁾ 宣祖 즉위년에 奇大升이 군주에게 《大學》을 강하는 자리에서 “文王은 또한 生知之 聖人이라고 하면서, 《詩經》〈文王〉편의 ‘文王을 본받으면, 온 나라가 믿고 따르리라.’”라고 하는 말을 인용하였다.⁶⁾ 이는 조선시대가 유교적 통치이념을 받들고, 문왕은 그 정점에 서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實錄》에 인용된 조선시대 군신간의 《詩經》〈文王〉편에 대한 활용사례를 통해서, 먼저 그 활용된 방식을 살피고 나아가서는 조선의 유교 정치관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 〈文王〉편에 대한 내용 분석을 가하고, 이후 《實

-
- 2) 이하 논지 전개에 편의상 《朝鮮王朝實錄》을 《實錄》이라 약칭하기로 한다.
 - 3) 강미정,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시경(詩經) 인용 양상과 그 문학 치료적 의의》,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전반적인 소개는 정원호, 9쪽 참조.
 - 4) 조남욱 지음, 《조선조 유교 정치문화》,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8.
강광식 지음, 《유교정치사상의 한국적변용: 조선조 사례연구》, 서울: 백산서당, 2009.
오원자, 〈朝鮮王朝에 있어서의 儒教〉, 《法經論叢》 제12집, 1977, 125~131.
이정복, 〈한국의 정치문화〉, 《한국정치연구》 제12집 제1호, 2003, 1~56.
최병덕, 〈조선조의 유교정치문화와 ‘기강’담론의 존재양상〉, 《대한정치학회》 제17집, 2010, 1~27.
 - 5) 정원호, 31쪽 참조.
 - 6) 《宣祖實錄》 즉위년(1567) 11월 17일 1번째 記事: ‘文王亦是生知之聖人也。……儀刑文王, 萬邦作孚.’

錄》에서 군신 간에 다루고 있는 〈文王〉편의 인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문학작품이 정치 현장에서 다루어질 때 그 작품의 어떠한 면을 부각시켰는가를 고찰함과 동시에 문학작품의 현실적 의의를 부각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文王〉편을 통해 본 조선의 유교정치의 한 단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논지의 전개상 동일한 작품을 정치 현장에서 사용하더라도 군주가 신하에게 내리는 글에서 인용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신하가 군주에게 바치는 글에서 인용한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조선의 왕권과 신권의 견제와 대립의 한 단면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4장의 결론에서는 《詩經》〈文王〉편이라는 문학작품을 통해 군신 간에 펼쳐진 조선의 유교정치의 단면에 대한 고찰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詩經》〈文王〉편의 내용 풀이와 인용 양상

《詩經》은 내용이 대개 일반 백성들이 부르던 民間歌謠인 〈風〉과 朝廷의 集會와 宴會 때 公卿大夫들이 읊던 〈雅〉와 宗廟에서 제사할 때 읊던 〈頌〉으로 구분되어지는 지는데,⁷⁾ 그 가운데 〈雅〉는 다시 〈小雅〉와 〈大雅〉로 분류되며, 〈文王〉편은 〈大雅〉의 첫머리에 나온다.

〈毛氏序〉에서 “〈文王〉편은 문왕이 하늘의 命을 받아 周나라를 일으키는 것을 읊은 시이다.”⁸⁾라고 하였다. 조선은 유교를 국교 이념으로 삼고, 그 유학은 주자학으로 귀일되었으며, 유교의 교리 해석은 모두 朱熹의 방법에 따랐다.⁹⁾ 그러므로 본고의 《詩經》〈文王〉편의 원문에 대한 저본은 朱熹의 《詩集傳》으로 삼았으며,¹⁰⁾ 시편의 分章과 解釋도 이에 근거하였

7) 정원호, 1쪽.

8) 文王, 文王受命作周也. 《毛氏正義》, 十三經注疏本, 北京大學出版社, 2000.

9) 정원호, 13쪽 참조.

10) 朱熹, 《詩集傳》, 臺北: 中華書局, 民國71(1982).

음을 밝혀둔다.

〈文王〉편의 인용 양상은 《實錄》에 수록된 記事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속해 있는 것이다. 매 記事마다 처한 역사적 시기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용의 형태도 다르며, 인용의 목적도 다르다. 순문학 작품으로 읽힐 때의 〈文王〉편과는 또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를 분류해보면 전체 〈文王〉편 가운데 정치 현장에서는 어느 구절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으며, 인용의 방법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文王〉편을 송독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할 것이다. 지금까지 《詩經》의 시 한 수를 두고 이러한 식의 인용 형태를 분류하고 분석한 자료는 찾아보기가 힘든 형편이다.

1. 〈文王〉편의 내용 풀이

- 文王在上，於昭于天. 文王의 신령이 천상에 계시니, 아! 하늘에 밝게 빛나도다.
- 周雖舊邦，其命維新. 周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그 부여받은 天命은 새롭게만 하도다.
- 有周不顯，帝命不時. 周나라가 어찌 밝게 드러나지 아니하며, 상제의 命이 어찌 때에 맞지 않으리오.
- 文王陟降，在帝左右. 문왕이 천상천하를 오르내리시며, 상제의 곁에 계시도다. (제1장)
- 亶亶文王，令聞不已. 근면하기 그지없으신 文王, 훌륭한 명망 끝이 없도다.
- 陳錫哉周，侯文王孫子. 周나라에 많은 은택을 베풀어 주시어, 문왕의 자손들이 누리시도다.
- 文王孫子，本支百世. 문왕의 자손들, 본손과 방계손 모두 백세토록 이어질 것이로다.
- 凡周之士，不顯亦世. 모든 周나라의 문무백관이, 대대로 밝게 빛나도다. (제2장)
- 世之不顯，厥猶翼翼. 대대로 밝게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들의 계책이

- 근실하고도 공경하도다.
- 思皇多士, 生此王國.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이 왕국에서 태어났도다.
王國克生, 維周之禎. 왕국에서 그들을 잘 길러내니, 周나라의 버팀목이 되도다.
- 濟濟多士, 文王以寧. 모여든 많은 선비들이여, 文王이 이들로 인해 편안하시도다. (제3장)
- 穆穆文王, 於緝熙敬止. 덕이 깊은 문왕이여, 아! 계속 밝게 빛나고 공경하시도다.
- 假哉天命, 有商孫子. 위대한 하늘의 命이여, 商나라의 자손들에게 내려졌도다.
- 商之孫子, 其麗不億. 商나라의 자손들은, 그 수가 億에 그치지 않건만,
上帝既命, 侯于周服. 상제가 이미 명을 내리시어, 周나라에 복종케 하도다. (제4장)
- 侯服于周, 天命靡常. 周나라에 복종케 되었으니, 하늘의 命은 일정하지 않다네.
- 殷士膚敏, 裸將于京. 殷나라의 뛰어난 자들이, 周나라의 도성에서 제사를 도우네.
- 厥作裸將, 常服黼皐. 그 제사를 돕는 자들은, 항상 보불과 殷나라의 冠을 쓰도다.
- 王之蓋臣, 無念爾祖. 周王에게 등용된 신하들은, 그대들의 조상을 그리워하지 말도다. (제5장)
- 無念爾祖, 聿脩厥德. 그대들의 조상을 그리워하지 말고, 그 덕을 닦아야 하도다.
- 永言配命, 自求多福. 길이 하늘의 命에 부합하여,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할지로다.
- 殷之未喪師, 克配上帝. 殷나라가 민중을 잃지 않았을 때에는, 능히 상제의 命에 부합했도다.
- 宜鑒于殷, 駿命不易. 마땅히 殷나라를 거울로 삼을지니, 큰 命은 지키기 쉽지 않도다. (제6장)
- 命之不易, 無盭爾躬. 큰 命은 지키기 쉽지 않으니, 그대 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 宣昭義問, 有虞殷自天. 빛나는 명성 밝게 드리우고, 殷나라를 보며 하늘의 命 헤아려보라.

上天之載, 無聲無臭. 하늘이 하시는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네.
 儀刑文王, 萬邦作孚. 文王을 본받으면, 온 나라가 믿고 따르리라. (제7장)

2. 〈文王〉편의 인용 양상

《實錄》에 수록된 《詩經》의 구절들은 대개 그 상황에 알맞은 한 두 구절을 인용하는 수가 많다. 이는 그 내용을 포함한 나머지 전체 구문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文王〉편의 詩 구절들을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어떤 왕대에 이 〈文王〉편을 많이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이어서 〈文王〉편 전체 구절 가운데 어떤 구절들을 인용하였는가에 대해 그 구절 및 사용빈도 수를 적시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는 앞서 살펴본 〈文王〉편의 내용 이해에 기초하여 이러한 성격의 구절들을 어느 왕대에 많이 사용되었는가를 조사해보면 그 당시 정국의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각 구절의 인용빈도 조사는 읽고 감상하는 문학작품이 삶의 정치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졌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조선의 역대 군주들의 〈文王〉편의 인용횟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군 주	집권 기간	인용 횟수	군 주	집권 기간	인용 횟수
제1대왕 태조	6년	0	제15대왕 광해군	15년	0
제2대왕 정종	2년	1	제16대왕 인조	26년	3
제3대왕 태종	18년	1	제17대왕 효종	10년	0
제4대왕 세종	32년	2	제18대왕 현종	15년	3
제5대왕 문종	2년	0	제19대왕 숙종	46년	1
제6대왕 단종	3년	0	제20대왕 경종	4년	0
제7대왕 세조	13년	5	제21대왕 영조	52년	7
제8대왕 예종	1년	1	제22대왕 정조	24년	6

제9대왕 성종	25년	3	제23대왕 순조	34년	1
제10대왕 연산군	12년	3	제24대왕 헌종	15년	1
제11대왕 중종	38년	8	제25대왕 철종	14년	1
제12대왕 인종	1년	0	제26대왕 고종	44년	2
제13대왕 명종	22년	5	제27대왕 순종	3년	0
제14대왕 선조	41년	3			

위의 표에서 보면 집권 기간이 인용횟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인용된 군주는 제11대왕인 중종 임금이다. 다음으로는 제21대왕 영조, 제22대왕 정조, 제7대왕 세조이다. 여기서는 〈文王〉편의 작품 성격과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연계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상기 네 군주의 〈文王〉편과 관련된 정치적 상황은 제3장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文王〉편의 각 구절의 정치현장에서의 사용빈도를 조사해 볼 것이다. 이는 문학작품과 현실정치와의 연계고리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문학작품으로 대할 때에는 전체적인 구조와 각 구절간의 긴밀한 상호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치현장에서는 그 순간 가장 필요한 한 두 단어 혹은 한 두 구절이 필요할 뿐이다. 이를 앞장에서 풀이한 내용의 이해에 바탕하여 인용횟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순서	구 절	인용횟수	순서	구 절	인용횟수
1	文王在上	1	2	於昭于天	0
3	周雖舊邦, 其命維新	5			
4	有周不顯	0	5	帝命不時	0
6	文王陟降, 在帝左右	2			
7	亶亶文王, 令聞不已	1			
8	陳錫哉周, 侯文王孫子	1			

9	文王孫子	0	10	本支百世	2
11	凡周之士, 不顯亦世	1			
12	世之不顯	0	13	厥猶翼翼	0
14	思皇多士, 生此王國	2			
15	王國克生	0	16	維周之楨	0
17	濟濟多士	3			
17-1	濟濟多士, 文王以寧	11			
18	穆穆文王, 於緝熙敬止	2			
18-1	緝熙	8	18-2	敬止	1
18-3	緝熙敬止	2			
19	假哉天命	0	20	有商孫子	0
21	商之孫子	0	22	其麗不億	0
23	上帝既命	0	24	侯于周服	0
25	侯服于周, 天命靡常	1			
26	殷士膚敏, 裸將于京	1			
27	厥作裸將	0	28	常服黼皐	0
29	王之蓋臣	0	30	無念爾祖	0
31	無念爾祖, 聿脩厥德	1			
31-1	聿脩厥德	1			
32	永言配命, 自求多福	1			
33	殷之未喪師, 克配上帝	1			
34	宜鑒于殷, 駿命不易	1			
34-1	駿命不易	1			
35	命之不易	0	36	無遏爾躬	0
37	宣昭義問	0	38	有虞股自天	0
39	上天之載, 無聲無臭	2			
40	儀刑文王, 萬邦作孚	1			
40-1	儀刑	1			

표에서는 본문의 구절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였으며, 두 구절이 인용될 때, 혹은 그 안에서 다시 한 구절 혹은 세부 글자가 인용될 때에는 번호를

넘기지 않고, 그 번호의 하위 번호로 새겨놓았다. 이는 해당 구절들의 인용이 많이 되었다는 증거이다. 특히 '18'번의 구절 '穆穆文王, 於緝熙敬止'은 '18-1', '18-2', '18-3'의 하위 번호가 매겨져있으며, 그 가운데 '緝熙' 두 글자의 인용이 8회나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은 '濟濟多士, 文王以寧'이다. 이는 인재가 많음으로 인하여 文王이 편안해하였다는 것으로, 조선시대 인재 양성에 관한 이야기가 각 군주마다 화두로 대두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구문이다. 다음으로는 '穆穆文王, 於緝熙敬止'으로 덕이 깊은 문왕을 찬양하는 구절이다. 이는 결국 文王의 시대를 정치 이상주의 시대로 간주하여 현 조선시대도 그와 같은 군주를 바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文王〉편의 제목만 인용한 횟수도 4회가 되며, 시의 구절이나 글자배열을 있는 그대로 쓰지 아니하고, 변형시켜 인용한 경우도 다수 있다.¹¹⁾

Ⅲ. 《實錄》에 수록된 〈文王〉편의 활용사례 분석

《實錄》에 인용된 〈文王〉편의 구절은 모두 57회이다. 글을 주고받은 상호 관계를 조사해보면 군주가 신하에게 인용한 횟수는 14회이며, 신하가 군주에게 인용한 횟수는 39회 이다. 나머지 4편은 이 두 범주에 넣을 수 없는 관계이다. 《實錄》의 記事에 대한 이러한 분석과 조사는 조선의 정치사회에서 이루어진 군신간의 상호 견제 및 대립의 각도에서 같은 시편을 두고 상호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는 문학작품을 다루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같은 작품이 다양한 작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며, 또 문학작품이 현실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 가를 살펴볼 수 있는 단초가 되기도 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 상황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文王〉편을 통해 조선의 유

11) 원 구절 변형시켜 응용한 예는 제3장에 일부가 소개됨.

교정치 혹은 왕도정치의 실현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잣대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논지의 전개는 먼저 군주가 신하에게 인용한 〈文王〉편을 다루고, 이어서 신하가 군주에게 인용한 〈文王〉편을 다루고자 한다. 《實錄》의 기사 인용은 시대순서를 따라서 취하여 다루고자 한다.¹²⁾

1. 군주가 신하에게 인용한 〈文王〉편

世祖 2년¹³⁾ 記事에 세조가 大明殿에 나아가 養老宴을 베푸는 중에 나이 든 전 郎將 金自海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면서, 여러 신하에게 〈文王〉편의 구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자해는 前朝¹⁴⁾의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 있다. 《詩經》에 이르기를, ‘殷나라의 뛰어난 자들이, 周나라의 도성에서 제사를 돕는다’라고 하였는데, 참으로 그러하다.”라고 하였다. 여러 늙은이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번갈아 일어나서 춤을 추니, 기쁜 음성이 사방에서 울렸다. (自海前朝人也, 今乃在此。《詩》曰, ‘殷士膚敏, 裸將于京’ 然矣。” 群老等扣頭迭起而舞, 歡聲四騰。)

여기서 세조는 文王의 밝은 덕으로 上帝가 전 왕조의 신하들마저 문왕에게 복종하여 문왕의 政事를 돕고 있다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이 시기는 세조가 집권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이다.

원래 국왕이 될 위치에 있지 않던 세조 자신이 政變을 일으켜 왕권을 탈취하게 된 처지였으므로, 그 비정통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역으로 그는 누구보다도 가장 왕위와 왕권의 專制性を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의도

12) 본 장에 인용된 《實錄》의 記事文에 관한 번역은 기본적으로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의 번역을 근간으로 하여 재번역을 가하였음을 밝혀둔다.

13) 《世祖實錄》 2년(1456) 10월 1일 2번째 記事.

14) 高麗를 가리킴.

적으로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¹⁵⁾

이에 정국운영에 뚜렷한 명분을 세우고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는 일은 세조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였을 것이다. 이러한 때 유교 왕도정치의 표상으로 일컬어지는 文王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세조는 전 왕조인 高麗의 유신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는 전제 군주에게 결여되기 쉬운 도덕적 왕도정치의 포용력을 과시하는 계기로 삼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詩經》의 〈文王〉편은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中宗 5년¹⁶⁾ 記事에 大臣 등에게 전교를 내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땅은 좁고 인재 또한 적으니, 인재 적음을 근심하는 것은 사세가 진실로 그러하다. 《시경》에 이르기를 “모여든 많은 선비들이여, 文王이 이들로 인해 편안해 하시도다.”라고 하였으니, 훌륭한 선비가 많이 모여든 것은 국가의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만약 선비를 높이고 道를 중하게 여기며 士氣를 배양한다면 인재가 많이 나와서 성대하게 세상에 쓰여질 것이다.(予意壤地偏小, 人林亦少, 其患乏人, 勢固然也. 《詩》云: ‘濟濟多士, 文王以寧.’ 多士濟濟, 乃國家之美, 然非一朝一夕之所致. 若崇儒重道, 培養士氣, 則人材輩出, 蔚爲世用矣.)

연산군의 폭정을 지나 19세의 나이에 권좌에 오른 中宗은 즉위 초 왕권이 미약하여 反正功臣勢力에 의지하여 조정을 운영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¹⁷⁾ 더구나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쿠데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유교적인 가치를 유달리 강조하였다.¹⁸⁾

15) 金泰永, 〈朝鮮초기 世祖王權의 專制性에 대한 一考察〉, 《한국사연구》 87권, 1994, 118쪽.

16) 《中宗實錄》 5년(1510) 9월 24일 2번째 記事.

17) 李棕浩, 金光哲, 〈朝鮮王朝中宗代의 王權과 政治勢力의 動向〉, 《논문집》 4권, 1982, 250쪽.

記事에서 보는 것처럼 “선비를 높이고 道를 중하게 여겨서” 士氣를 배양한다는 것은 일면 폭정을 일삼았던 폐조 燕山君과의 차별화된 유교왕도 정치의 표방화로 쿠데타의 당위성을 내세움과 동시에 당시 조정을 가득 메우고 있는 공신세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제창하는 것임에 다름없다. 이러한 시기에 인용된 <文王>의 구절들은 조선이 유교정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징표가 되어주는 것이다.

仁祖 3년¹⁹⁾ 完豐君 李曙, 平城君 申景禎 등이 연루된 上疏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記事가 있다.

제왕의 큰 지위는 실로 하늘이 명한 것으로 사람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폐조시대의 기찰행위는 매우 엄밀했으나 덕이 부족한 과인이 생명을 보존하였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것으로 본다면 천명을 거역하고 일을 도모한 자들은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니 국가에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 《서경》에 “하늘의 명은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였고, 《시경》에 “큰 命은 지키기 쉽지 않다.”라고 하였으니, 단지 하늘의 명만을 믿고 악을 고치지 않은 자는 桀·紂였고, 하늘의 명을 잘 받들어 더욱 그 덕을 닦은 자는 湯·武였다. …… 단지 덕을 닦느냐 닦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따름이다.(帝王大位, 天實命之, 非人人所可得有也. …… 至於廢朝之譏察, 極其嚴密, 而寡昧保存, 此豈非天意乎? 以此觀之, 則逆天謀事者, 徒欲速其死耳, 於國家何有? 《書》曰 “天命靡常.”²⁰⁾ 《詩》云 “峻命不易.” 徒恃天命, 而不梭其惡者, 桀、紂也; 克承天命, 而益修其德者, 湯、武也. ……只在於其德之修與不修耳.)

18) 진상원, <朝鮮中期 道學의 正統系譜 成立과 文廟從祀>, 《한국사연구》 128권, 2005, 153쪽.

19) 《仁祖實錄》 3년(1625) 10월 29일 1번째 記事.

20) 아! 하늘을 믿기 어려운 것은 그 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 덕을 일정하게 지키면 그 지위를 보존하고, 그 덕을 일정하게 지켜내지 아니하면, 온 나라가 망할 것이다.(嗚呼. 天難謀, 命靡常, 常厥德, 保厥位, 厥德非常, 九有以亡.) 《書經·咸有一德》.

仁祖는 光海君 뒤 反正을 통해 등극한 군주이다. 집권 2년이 되던 해 李适의 亂으로 서울까지 점령을 당한 큰 홍역을 치렀었다. 이 記事의 시점은 바로 그 다음 해이다. 仁祖는 하늘이 한번 명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명을 받은 자가 덕을 닦지 아니하면 그 지위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늘의 명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음을 《書經》과 《詩經》 두 경서를 인용하여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본인은 폐조의 전철을 밟지 않고 문왕의 덕치주의를 본받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앞 記事에 나온 中宗과 유사한 상황을 보여준다. 두 군주 모두 직전에 폐조의 과정을 밟고 올라와서 국정을 아직 본인들이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文王〉편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보면 〈文王〉편의 구절이 군주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즉 자신들이 文王의 길을 존송하는 仁君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력에게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이 시편이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英祖 31년²¹⁾ 記事에 儒臣을 불러 〈文王〉편을 講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교하는 내용이 있다.

文王의 정치는 곧 어린 백성을 감싸주고 보호하는 것으로서, 바람 소리가 사방에서 일어나 찬 기운이 편전에까지 침투하니, 하물며 곤궁한 백성과 걸식하는 아이들이야 어떻겠는가? 선제청에 분부하여 떠돌아다니는 거지들을 모아 밤에 그 추위를 막아주고 다음날 양식을 지급하라.(文王之政, 卽懷保小民, 聞風聲四起, 寒氣透便殿, 況窮民乞兒, 尤將若何? 分付惠廳, 聚集流丐, 夜護其凍, 明給其糧.)

英祖 32년 1월 3일²²⁾ 記事에 明政殿에 나아가 교서를 반포하고 中外에 大赦를 내리니 못 신하들이 致詞한다는 내용이 있다.

21) 《英祖實錄》 31년(1755) 12월 18일 2번째 記事.

22) 《英祖實錄》 32년(1756) 1월 3일 1번째 記事.

임금이 大臣에게 下諭하기를, “八道에서 굶주림을 고하고, 조정의 일이 많이 지체되었다. 오늘은 거의 開闢하는 날과 같으니, 卿 등은 힘쓰도록 하라.”라고 하고 …… 國子長에게 下諭하기를, “《시경》에 이르기를 ‘모여든 많은 선비들이여, 文王이 이들로 인해 편안해 하시도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이로써 儒生들에게 권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上諭大臣曰 “八路告饑, 廟務多滯。今日殆同開闢, 卿等勉勵哉。” …… 諭國子長曰: “《詩》云 ‘濟濟多士, 文王以寧。’ 盍以此勉諸生焉?”)

왕위 계승의 정통성 是非와 노론과 소론간의 치열한 政爭을 경험한 英祖는 집권 후 봉당정치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蕩平策을 펼치는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첫 번째 記事에서 英祖는 <文王>편을 講하는 자리에서 곤궁한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으며, 두 번째 記事에서는 새해 벽두 초대사면을 펼치며 大臣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 앞에서 그들의 민생을 외면한 그릇된 정치관행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文王>편의 구절을 인용하였다. 불과 한 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두 번이나 같은 시편의 구절을 언급하였다는 것은 이 시편의 과급효과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즉 당파들 간의 알력에도 본인은 왕도정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탕평책을 계속 펼쳐나갈 수 있는 당위성을 얻는 것과 동시에 정쟁에 몰두하는 신하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正祖도 재위기간에 <文王>편의 구절을 3회 정도 언급하였다.

正祖 8년²³⁾에는 자손들에게, 15²⁴⁾년에는 태학의 유생들에게 “모여든 많은 선비들이여, 文王이 이들로 인해 편안해 하시도다.(濟濟多士, 文王以寧.)”라고 하는 구절을, 24년²⁵⁾에는 신하 宋稚圭에게 “너를 자의로 삼음으로써, 周나라의 문무백관들 대대로 밝게 빛나는 것과 같이 하고자 하니, 네가 어찌 영광됨을 함께 하지 않겠는가?(爾爲諮議, 凡周亦世有奕其光²⁶⁾,

23) 《正祖實錄》 8년(1784) 7월 7일 7번째 記事.

24) 《正祖實錄》 15년(1791) 6월 18일 2번째 記事.

25) 《正祖實錄》 24년(1800) 1월 12일 5번째 記事.

爾豈不與有榮矣乎?)”라고 하는 구절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憲宗 5년²⁷⁾과 高宗 3년²⁸⁾에 각각 1회씩 언급하였다.

이를 미루어보면 군주가 신하에게 〈文王〉편의 구절을 언급할 때에는 대개는 유교의 왕도정치의 정통성을 부여받아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폭군과 대비되는 성군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전 임금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英祖는 肅宗때부터 계속되어온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독자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군주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나름 정치적 이유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신하가 군주에게 인용한 〈文王〉편

《實錄》에서는 신하가 군주에게 인용한 〈文王〉편의 횟수가 군주가 신하에게 인용한 편보다 많이 나타난다.

世宗 24년²⁹⁾ 文武科의 급제자들이 임금이 恩榮宴을 하사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이 있다.

대개 文하시고 武하시며 관대하고 어지시어, 《孟子》의 천하의 英才를 얻어 교육한다는 뜻을 상고하고,³⁰⁾ 《大雅》의 〈文王〉편에 선비 많음을

26) 〈文王〉편: 모든 周나라의 문무백관이, 대대로 밝게 빛나도다.(凡周之士, 不顯亦世.)라는 구절을 변형 응용하였음.

27) 《憲宗實錄》 5년(1839) 10월 18일 1번째 記事: 《詩》曰 ‘永言配命, 自求多福。’ 又曰, ‘豈弟君子, 求福不回。’

28) 《高宗實錄》 3년(1866) 3월 1일 1번째 記事: 《書》所云 ‘胥及逸勤。’ 《詩》所稱 ‘聿修厥德。’ 非卿今日之謂乎?

29) 《世宗實錄》 24년(1442) 9월 7일 1번째 記事.

30)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 “부모가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고개숙여 사람에게 부끄러움 없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생각하시는 성상을 만났기 때문에, 마침내 노둔한 재질로서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니……(茲蓋伏遇乃文乃武，克寬克仁。稽軻書之育才，念《周雅》之多士。遂令驚鈍，獲被洪私。)

世祖 6년³¹⁾ 文武科의 급제자들이 임금의 恩榮宴을 하사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이 있다.

이와 같은 영광은 옛날에도 드물었던 바이니, 이는 대개 성상께서 群雄을 거느리시고 一世를 망라하시는 때를 삼가 만나서, 《大雅》의 〈文王〉편에 선비 많음을 생각하시고 《商書》의 어진 이를 세운 것을 체득하시어, 마침내 영광스럽고 빛나는 은혜를 입은 미천한 자로 하여금 일월의 비춤도 올 수 있게 하시니……(榮光若此，古昔所稀。茲蓋伏遇駕馭群雄，網羅一世，念《周雅》之多士，體《商書》之立賢，遂令榮燭之微，得裨日月之照……)

이 두 편의 記事는 내용이 모두 과거 급제자들이 임금의 恩榮宴을 베풀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한 내용이다. 두 편 모두 〈文王〉편의 구절 “濟濟多士”를 일부 변형시킨 “念《周雅》之多士”라는 표현을 썼다. 그 구절의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 世宗에게 바치는 글보다 世祖에게 바치는 글이 훨씬 과장스러움을 알 수 있다. 世宗 때의 記事와 世祖 때의 記事 사이의 年代를 보면 그 거리가 채 20년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世祖에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영광은 예전에는 드물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바로 세조는 단종복위사건, 즉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정신적 갈등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결국엔 성군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專制君主의 길을 택했는데 비해, 세종은 “신하를 禮로 부리고” “비록 작은 일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君子有三樂. …… “父母俱存，兄弟無故，一樂也，仰不愧於天，俯不忤於人，二樂也，得天下英才而教育之，三樂也.”) 《孟子·盡心章句上》.

31) 《世祖實錄》 6년(1460) 8월 18일 2번째 記事.

이라도 大臣과 상의하는” 등 끝까지 王道政治를 구현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³²⁾ 이에 〈文王〉편의 이 구절이 世宗에게는 자연스럽게 여겨지나, 世祖에게는 지나친 아첨을 위해서 바친 글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이를 보면 완벽히 같은 상황에서 동일 시편을 인용하였더라도 대상에 따라 이처럼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 《詩經》〈文王〉편이다.

成宗 18년³³⁾ 司諫院 大司諫 金首孫 등이 帝王이 행할 만한 道와 국가에서 없앨 만한 폐단을 채집하여 條目별로 상소한 記事가 있다. 그 가운데 《詩經》〈文王〉편의 구절이 포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 등은 진실로 전하께서 마음을 精一하여 그 中道를 잡는 학문으로 씨³⁴⁾ 계속 밝게 빛나고 공경한 功을 더하시어³⁵⁾ 佛道를 믿지 않는 마음이 깊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사방의 만백성이 국가에서 여러 사찰의 승려들에게 식사를 베풀고 공불하는 것이 이미 이와 같고 또 사찰의 일을 도와 줄 사람을 제공한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을 듣는다면, 국가에서 佛氏의 道를 믿지 아니한다고 이르겠습니까?(臣等固知殿下以精一執中之學, 加緝熙敬止之功, 其不信佛道也深矣。然四方萬民, 聞國家之於諸刹也, 其所以飯僧供佛者既如彼, 其所以給服事之人者又如此, 則其謂國家不信佛氏之道乎?)

司諫院에서 올린 장편의 상소문 내용은 시종일관 임금의 독단적 통치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文王〉편이 인용된 이 記事에서 보면 승불정책을 폐하고 유교이념을 지향한 국가에서 여전히 사찰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비판의 문장을 시작하기 전에 군주에 대해서 유교의 《書經》과 《詩經》을 예로 들며, 특히 유교 왕도정치의 정점에 서있는 文王의 밝게 빛나는 공덕을 갖추고 있다고 한

32) 박현모, 《세조의 국정운영 방식 연구》, 《한국사연구》 161권, 2013, 253-4쪽 재인용.

33) 《成宗實錄》 18년(1487) 1월 23일 5번째 記事.

34) 人心은 위태롭고 道心은 은미하니 오직 精一하여야 진실로 그 中道를 잡을 것이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書經·大禹謨》.

35) 穆穆文王, 於緝熙敬止. 《詩經》〈文王〉.

껏 추켜세웠다. 이는 바로 그 뒤 불교지원책을 비판하기 위한 가장 강한 어조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결같아야 할 군주가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쓰인 〈文王〉편의 이 구절은 신하가 임금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어주는 것이다.

燕山君 10년³⁶⁾에 간택한 여자들의 의복과 음식을 모두 公費로 지급하라는 記事가 있다.

승정원에 묻기를, “무릇 인군이 후궁을 많이 두는 것은 후계를 넓히고자 하는 것인데 …… 대저 酒色이 어찌 반드시 나라를 그르치겠는가? …… 후궁이 많다 할지라도 荒淫에 이르지 아니하면 또한 나라를 그르치지 않는 것이다.”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하십니다. …… 또 이르기를 ‘(문왕의 자손들) 본손과 방계손 모두 백세토록 이어질 것이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자손이 많음을 찬미한 시편입니다. 인군이 후계를 넓히시는 일에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仍問承政院曰: “凡人君多後宮, 欲以廣繼嗣也……夫酒色豈必誤國也? ……後宮雖多, 不至荒淫, 則亦不誤國也.” 承旨等啓: “上教允當. ……又曰 ‘本支百世.’ 此皆贊美子孫衆多之詩也. 人君廣繼嗣之事, 有何不可?”)

총 재위기간 12년인 燕山君에게 있어서 이 記事가 쓰여진 10년째 후반은 전제와 폭정이 극에 달할 시점이었다. 記事에서 연산군이 酒色이 반드시 나라를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면서 본인이 후궁을 많이 두고자하는 것은 모두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억지논설을 펼치고 있다. 이 말에 신하들은 한술 더 떠서 聖王인 文王도 후손을 그렇게나 많이 두셨다고 하면서 燕山君의 이러한 행위는 지당하다고 극에 달한 아첨을 하고 있다. 유교 왕도정치의 표본으로 여겨지는 文王의 예가 조선 폭군의 대표적인 燕山君 시절에 와서는 이처럼 아이러니하게 정반대로 탈바꿈되어버렸다. 이를 통해 조선의 유교지향 정치관과 이러한 시편 한 구절이 가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 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36) 《燕山君日記》 10년(1504) 12월 2일 2번째 記事.

中宗 20년³⁷⁾ 成均館 生員 鄭世球 등이 大司成 尹倬의 사직을 받아들이지 말도록 상소한 記事가 있다.

삼가 들건대, 대사성(大司成) 윤탁(尹倬)이 병으로 사직하자 급하게 체직 하도록 명하셨다 하니, 신들은 지극히 한탄스럽고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겠 습니다. …… 지금 대사성 윤탁이 풍병을 만나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책을 들고 강설할 수는 있습니다. ……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직을 바꾸도록 하신 명을 급히 거두어 주시고, 다시 가서 화합하라는 분부를 내리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모여든 많은 선비들로 인해 文王이 편안해 하신 것처럼은 신들이 감히 외람되어 견줄 수 없지만, 스승 앞에 옷깃을 여미고 앉아 …… 상이 상소를 보고 나서 전교하기를, “너희들의 뜻은 아름답게 여길 만하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받아들여 다시 체직하지 말라는 명을 내리겠으니, 너희들 또한 부지런히 학업에 정진하여 그 효과를 거두기를 바라노라.(伏聞, 大司成尹倬以疾辭, 而遽命遞職, 臣等不勝嘆懼之至。……今者, 大司成尹倬, 雖遭風疾, 猶能執經講說。……伏願殿下, 急收改職之命, 更下往諧之教。如是 則文王以寧之濟濟, 臣等雖不敢僭擬, 樞衣函丈之間……上覽疏而傳曰: “爾等之意可嘉。予聽爾等之言, 復下勿遞之命, 爾等亦可勉強學業, 期得其效也。”) ”

여기서 보면 성균관 생원들은 《詩經》〈文王〉편의 文王이 많은 인재들 로 인하여 편안해한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임금의 하교한 정책을 다시 거 두어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임금은 그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 이 처럼 〈文王〉편의 내용은 신하가 임금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임금의 정책마저 바꿀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正祖 21년³⁸⁾ 執義 李明淵이 임금의 정치를 정면으로 비판한 記事가 있 다.

지난 여름 이래로 신하들이 하는 말이나 일이 혹 성상의 마음에 맞지 않 으시면 전교를 내리심이 간결하면서도 엄중함이 결여되고 처분을 내리실

37) 《中宗實錄》 20년(1525) 8월 8일 5번째 記事.

38) 《正祖實錄》 21년(1797) 1월 17일 3번째 記事.

때는 매번 엄하고도 조급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史冊에 기록되어 만세토록 우러러 볼 것인데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변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詩經》에 ‘모여든 많은 선비들이여, 文王이 이들로 인해 편안하시도다.’ 라고 하였고, 《書經》에는 ‘네가 따르고 벼슬아치가 따르고 백성들이 따르면 이것을 일러 大同이라고 하는데’³⁹⁾....속을 다스리고 근원을 밝게 하는 일은 오로지 전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비답하기를, “나이 젊은 사람이 생각한 바를 숨기지 않으니 매우 가상하다만, 올바른 도리를 너 또한 깊이 살피고 궁구하도록 하라.” (竊觀前夏以來, 諸臣之若言若事, 或有不概聖心, 則辭教之發動欠簡重, 處分之下輒尚嚴急. 此皆史冊所書, 萬世所仰, 何爲而放倒至此?...《詩》云 ‘濟濟多士. 文王以寧.’ 《書》曰 ‘汝則從卿士從庶民從, 是之謂大同’若其理中澄源之道, 惟在殿下方寸之間....批曰 “年少之人, 有懷無隱, 殊甚嘉乃, 而矩方之義, 爾亦諳究.”)

이 記事를 보면 신하인 李明淵은 군주의 정책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엄중함이 결여되고’, ‘엄하고 급하다’라고 비판하며 사책에 기록될 군주의 마음가짐이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냐고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 문구 속에는 역시 《詩經》과 《書經》의 두 經書를 나란히 동원하고 있다. 《詩經》〈文王〉편의 文王이 많은 인재들로 인하여 편안해 한다는 문구를 여기서는 군주가 신하를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고 성질대로 급하게 처리해 버리니 文王의 정치와는 전혀 다르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즉 〈文王〉편의 이 구절이 군주를 견제하고 나아가서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記事의 말미에 보면 正祖 역시 그 말에 동조하지 않고 ‘너 또한 잘 하라’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IV. 결 론

이상에서 《朝鮮王朝實錄》에 인용된 《詩經》〈文王〉편의 활용사례를

39) 원문에는 가운데 두 구(거북점이 따르고 시초점이 따르고)가 더 있음 (汝則從, 龜從, 筮從, 卿士從, 庶民從, 是之謂大同.) 《書經·洪範》.

고찰해 보았다. 〈文王〉편은 《詩經》 305편 가운데 조선의 정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시편이다. 본고에서는 《實錄》에 인용된 《詩經》〈文王〉편에 대한 활용사례를 통해서, 그 활용방식과 이를 통한 조선의 유교 정치관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文王〉편에 대한 내용 파악과 조선시대 역대 군주들의 〈文王〉편의 인용 횟수를 살펴보았다. 이는 왕이 처한 정치적 입장과 당시의 시대상황이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로 보았다. 이를 통해서 본 결과 〈文王〉편이 가장 많이 인용된 군주는 제11대 왕인 중종 임금이었으며 다음으로 제21대왕 영조, 제22대왕 정조, 제7대왕 세조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文王〉편 각 구절의 조선 정치 현장에서의 사용 빈도를 살펴보았다. 이는 문학작품과 현실정치와의 연계고리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었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은 “濟濟多士, 文王以寧”이었다. 이는 조선시대 인재 양성이 각 군주마다 화두로 대두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다. 다음으로 “穆穆文王, 於緝熙敬止”로 덕이 깊은 문왕을 찬양하는 구절이었다. 그 외 한 두 번 인용된 구절들도 있었고, 전혀 인용되지 않은 구절도 다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떤 구절들은 바로 인용하지 않고 구절의 형태를 변형시켜 인용한 것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詩經》의 시편이 순수 문학작품으로 언급될 때에는 작품 전체의 내용과 구조가 한데 어우러져 그 작품의 가치를 결정짓는 잣대로 쓰이지만, 정치 현장에서는 작품 전체의 흐름과 관계없이 내용상으로 가장 필요한 한 두 마디 혹은 구절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詩經》〈文王〉편의 《實錄》에서의 활용 사례에 대하여 조선 정치현장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군주와 신하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각자가 처한 신분에 따른 정치적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었다.

먼저 군주가 신하에게 인용한 〈文王〉편을 살펴보았는데, 〈文王〉편의 전체 인용횟수 57회 가운데 군주가 신하에게 인용한 횟수는 14회로 나타났

다. 여기서는 각 군주마다 자신이 처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같은 〈文王〉편이라 하더라도 그 인용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가령 왕위 등극상의 문제로 정국운영에 뚜렷한 명분을 세우고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던 世祖는 유교 왕도정치의 표상으로 일컬어지는 文王의 사례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가장 좋은 본보기였다. 이에 前朝의 유신을 포용하는 文王과 유사한 정책을 펼치면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詩經》의 〈文王〉편은 훌륭한 소재가 되어주었다. 中宗과 仁祖는 모두 그전 폐조의 과정을 지켜보고 올라와서 국정운영에 있어서 폐조와는 다른 새로운 왕도정치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이러한 때 〈文王〉편은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력에게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왕위 계승의 정통성 是非와 당파간의 치열한 政爭을 몸소 경험한 英祖는 집권 후 봉당정치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탕평책을 계속 펼쳐가면서 동시에 신하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독자적인 노선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새해 벽두 초 대사면을 펼치며 大臣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 앞에서 그들의 민생을 외면한 그릇된 정치관행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文王〉편의 구절을 인용하였다.

다음으로 신하가 군주에게 인용한 〈文王〉편을 살펴보았는데, 《實錄》에서는 신하가 군주에게 인용한 〈文王〉편의 구절이 군주가 신하에게 인용한 편보다 더 많이 나타났으며, 그 인용양상은 군주에 대한 아첨, 찬양, 견제, 비판 등의 다양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世宗과 世祖 때 과거 급제자들이 임금의 恩榮宴을 베풀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을 바친 내용을 보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시편을 인용하였더라도 대상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이 《詩經》〈文王〉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成宗 때 司諫院에서 올린 장편의 상소문 내용에는 군주에 대해서 文王의 밝게 빛나는 공덕을 갖추고 있다고 찬양하면서 한편으로는 왕의 불교지원책을 강하게 비판하였는데, 즉 찬양할 때 쓰인 〈文王〉편의 구절은 뒤 구절의 신하가 임금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

한 수단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조선의 폭군인 燕山君 때는 신하들이 〈文王〉의 시편을 이용하여 후궁을 많이 두려고 하는 군주의 욕망에 아첨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였다. 中宗 때에 〈文王〉편의 구절은 신하가 임금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임금의 정책마저 바꿀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正祖 때 〈文王〉편의 구절은 신하가 군주를 견제하고 나아가서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詩經》의 〈文王〉이라는 시 한 편을 조선시대에는 문학작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념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활용방식도 상황에 어울리는 다양한 변화를 주었으며, 군신간에 상호 견제와 비판 혹은 자기합리화에 이르기까지 적재적소에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비록 시 한 편이지만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조선의 유교정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선이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삼았으며 文王은 그 정점에 서있는 왕이었기 때문이다.

<References >

- Choi, Byung Deok, "The Political Meaning of 'Discipline(紀綱)' in the reign of the Joseon Dynasty", Korea Institute of Politics, 17th Series, 2010.
- Gang Gwang-Sig, "Korean alteration of Confucian Political Thought" Seoul: Baishan shu tang, 2009.
- Gang Mi-Jeong, "A Study on the Aspects of Citing Sikyeong(詩經) and its Literary Therapeutic Meaning in the Joseon wangjo Sillok", Ph.D.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2003.
- Jin, Sang-Won, "Legitimate Heirs and the Enshrinement of Confucian Scholars in Confucian Shrines during the Middle of Chosŏn",

- hanguksa Vol. 128, 2005.
- Jung Won-Ho, “A study on the cases of Shijing cite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Ph.D.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3.
- Kim Tae-Young, “Research on The Despotism of The king Sejo(世祖)”, hanguksa Vol. 87, 1994.
- Lee Chong-Ho, Gim Gwang-Cheol, “Trends of King Jungjong(中宗) moment Scepter and Political forces”, memoirs Vol. 4, 1982.
- Lee, Jung-Bok, “Korean Political Culture”, Korea Political Studies 12th Series No. 1, 2003.
- Maoshi zhengyi, Shisan jing zhushu ben, Beijing daxue chuban she, 2000.
- Mengzi zhushu, Shisan jing zhushu ben, Beijing daxue chuban she, 2000.
- Oh Won-Ja, “Confucian in the Joseon Dynasty”, Fajing luncong12th Series, 1977.
- Park, Hyun Mo, “A Comparative Study of King Sejong and King Sejo’s Decision Making Process”, hanguksa Vol. 161, 2013.
- Zhu-Xi, Shijizhuan, Taibei: Zhonghua shuju, Minguo71(1982)

< Abstract >

Wenwang is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poem among Shijing 305 poems in The Joseon Dynasty Politics. This study tries to take a look at the way that the poem was applied in the politics and the political ideology of Confucianism based on cases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hat cited the Wenwang. Chapter 2 covers the contents of Wenwang and the number of citations of Wenwang made by a line of

kings. The next chapter examines how frequently each phrase on Wenwang had been used in the political field. On chapter 3, we classified cases of citation appeared o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into vassals and king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purpose of quoting the poem can completel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political opinions derived from each position. First, those who quoted Wenwang as a king were mainly for solidifying the political posi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royalty handed by the Confucianism. On the other hands, vassals who quoted Wenwang used the poem for various purposes including flattery, praise, checks and criticisms. Through researches so far, we have been able to discover that how one poem called Wenwang had a huge impact on the Confucian politics in the Joseon Dynasty. This is because Joseon was a country aiming for the political ideology of Confucianism and Wenwang was on the apex of the ideology.

Key Words : 조선왕조실록(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시경
(Shijing), 문왕(Wenwang), 유교(Confucianism), 정치이념
(political ideology)

